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2022년 6월
저희 가정의 소식과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오순절을 향하여_오메르 카운트

이제 여호와와의 절기는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6월 5일 주일,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시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부터 49일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봄의 마지막 절기인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50일을 세어갑니다. 이것을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Sefirat HaOmer'라고 합니다. '세피랏'은 '세다', '오메르'는 곡식의 '단'(혹은 곡식량의 부피 단위)을 뜻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에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고 다음은 밀 추수 때인 오순절을 향해 50일을 세어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지요. 유대인들은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다음 추수인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점검하며 오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풍성한 수확을 위해 기도하는데 7주 이 기간 동안 첫 주는 비 바람을 동반하는 북풍이 불고 나머지 6주는 따뜻한 바람인 남풍이 불어야 풍성한 밀과 여름 과실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17~18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
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
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레와 비가 오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됩니까?

밀 베는 때는 오순절 시즌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야 하는 시기인 이 때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 즉, 북풍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인 밀 농사가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밀이 잘 영글어 가기 위해서는 비를 동반한 찬 바람인 북풍도 불어야 하고 따뜻하고 더운 바람인 남풍도 불어야 합니다.

오순절로 나아가는 이 시간은 그렇게 영글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부 단장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도록 자신을 더욱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가서 4:16**에서 말씀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저절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비 바람의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훈풍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신부로 빛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을 향해 가는 이 때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므로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지길 원합니다.

†오순절(사부웃) 성령의 불, ʘʘ

특별히 이번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불”의 계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유월절을 기점으로 북쪽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하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주시는 감동은 “거룩의 삶”으로 ‘기근과 추수의 때를 위한 요셉의 창고를 세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의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평장히 세밀하고 실질적인 거룩의 삶에 대해 말씀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습관처럼 굳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색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투, 표정, 생각의 연결고리 등 좀 더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주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거나 또는 나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분주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누군가에 대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한발짝 늦게 캐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의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면 내 안에 쓴뿌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고,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육적인 삶으로 치우치게 하는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순간 지켜지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부으심이 임해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 12: 14-16)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왜 불처럼 임하신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이 땅에 불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진리의 불이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태우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눅 12:49

구약에서 불(*שׂר* 에쉬)이라는 단어는 375회 나오며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거나 인

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에 관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שׂר*의 *שׂ*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ע*는 ‘소멸하는 불’을 상징합니다. 즉 *שׂר* 에쉬, 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불은 구약에서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은 심판입니다. 이 불은 생명나무를 격리시키고(창 3:24),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태워졌습니다.(창 19:24)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에 불로 태워졌습니다.(레 10:1 이하)

둘째, 불은 정결, 정화를 상징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제사장은 불을 지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든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민 31장) 또한 이사야는 연기로 가득한 성전을 보았고 부정한 입술을 솥으로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을 구약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붙였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왕상 18장)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 6)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한번 성령의 불이 임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선두주자들은 심판과 거룩을 외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남을 것인지 결단케 하는 담판을 짓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왕상 18:21)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곧 성령의 불이시며 이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우리는 태워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태워지게 되고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참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화의 삶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때로 그것을 핑계로 오늘의 삶에서 이뤄져야 할 구원과 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이신 성령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거세게 타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전파에 힘을 쏟을 때 놀라운 영혼 추수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지내는 이 때에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의 불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태우고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때 영혼 추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소식 및 기도제목

1.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서 시위와 테러 등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에 충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5.5(목) 저녁 이스라엘 중부 Rosh Haayin 근처 Elad 시에서 제닌 출신 팔레스타인인 2명이 행인들을 흉기로 공격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오전에 성전산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일부와 이스라엘 군경이 충돌하여 21명이 체포되고 2명이 부상당하는 등 크고 작은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5.29(일) 예루살렘의 날 (Jerusalem Day)을 맞이해 유대인 시위대가 울드시티 안으로 깃발 행진을 진행할 때에도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측이 이 행진에 대해 비난과 위협을 가하고, 성전산 (하람 알 샤리프)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군경 간 충돌이 지속되는 등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유럽에서 입국한 원숭이 두창 (MonkeyPox) 감염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질병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것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오순절 기간 이스라엘에서 대규모의 동성애 퍼레이드가 계속되어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6월 3일 예루살렘에서 일부 극우 정통 유대인들의 반대와 살해 위협이 있었기에 정부는 철저한 보안을 제공했으며, 수많은 인파가 모인 동성애 축제가 거행되었습니다. 6월 10일 텔아비브에서도 더 큰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오순절 기간 성령의 불로 이 땅의 죄악이 불타 정결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예슈아 하마시아가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계시어지게 하소서!

†가정 소식 및 기도제목

저희가 복으로 올라온지 약 세 달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마음은

첫째, “거룩하라”입니다. 새롭게 사역들을 개척하고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수고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크고 작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행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소서.
-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보석들을 잘 꿰어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께 겸손히 배우게 하소서.
- 요셉의 창고 NGO 단체 등록을 통해서 국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변호사 등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항상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살롬!

갈멜산-므깃도에서

로쉬 하다르 에텐 유향